

2013 연중 캠페인

www.g1tv.co.kr

강원의 미래, G1이 함께 합니다.

G1 강원민방은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방송권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지난 2001년 TV를 개국한 후 강원도를 대표하는 방송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1 강원민방은 사회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문화예술진흥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찾아가는 음악회, 희망의 집-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G1 강원민방은 강원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강원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랑받는 지역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방송

**GANGWON NO.1 BROADCASTING CORP.**

200-71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74 대표전화 033)248-5000 FAX 033)248-5030

G1 fresh-FM

- 춘천권역 105.1MHz
- 강릉권역 106.1MHz
- 원주권역 103.1MHz
- 태백권역 99.3MHz

초여름 밤의 을왕리 축제 '우리는 하나'

사우회 봄철 단합대회, 을왕리에 350여명 참석해 대성황

김수량 사우회장, 단합대회 지원해준 회사와 준비팀에 감사와 노고 치하
김종국 사장, '선배들이 이룩한 지난날의 영광 재현하겠다'



▶을왕리에서 열린 1박 2일 사우회 봄철 단합대회 첫 날 골든스카이리조트 야외수영장에서 만찬과 여흥을 즐겼다.

을왕리 골든스카이리조트서 1박 2일, 재작년 강촌 단합대회에 이어 두번째

사우회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회원 단합 대회가 사우회 김수량 회장과 MBC 김종국 사장 등 3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옆 골든스카이리조트에서 열렸다.

단합대회 첫날은 야외에 마련된 식당에서, 약간 쌀쌀하기는 했으나 드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초여름의 열기 가득한 '축제의 밤' 행사가 펼쳐졌다.

김수량 사우회 회장은, 회원단합대회를 1박2일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 해준 김재철 전 사장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도 위로했다.

김종국 사장은 "MBC가 드라마에서 강세를 보여 5월 2주간 시청률에서 경쟁사들을 누르

고 1위를 차지했으며, 뉴스데스크 시청률도 11%를 넘어섰다"면서, "빠른 시간안에 파업의 후유증을 정리하고, 선배들이 이룩했던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개그맨 김종석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여흥시간에는 가수 박상철 씨와 문희옥씨가 출연해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본사가 마련한 술과 푸짐한 요리를 안주삼아 현역시절을 회상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 깊어가는 줄을 몰랐다.

회원들의 노래자랑에서는 강성구 전사장이 1등을 차지해 만장의 박수를 받았고, 남자의 자격 합창단으로 유명해진 조석영(관리) 회원이 2위,

기사 2면에 계속

'위기 극복해 새로운 MBC 만들어 나가겠다'

MBC 제 31대 김종국 사장 취임

법과 원칙에 따라경영, 보도·시사부문 신뢰회복에 역점

5월 3일, 본사 D공개홀에서 취임식

MBC 제 31대 사장으로 선임된 김종국(57) 신임 사장이 5월 3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국 사장은 이날 MBC 본사 D공개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기를 도전으로 극복해 새로운 MBC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사장은 이어 "5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방송의 경영 책임자라는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사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에 MBC 기자 공채 15기로 보도국에 입사해 LA특파원과 경제부장, 정치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어 마산MBC·진주MBC 겸임 사장과 MBC경남 초대 사장, 대전 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5월 2일에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사장은 김재철 전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981년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81년 MBC 기자공채 15기
1997년 LA특파원
2000년 경제부장 정치부장
2008년 기획조정실장
2009년 마산MBC·진주MBC 겸임사장
2011년 MBC경남 초대사장
2012년 대전MBC사장

김사장은 최문순(현 강원도지사)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 MBC 노조 위원장 출신 사장이다.

김사장은 방문진 면접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보도·시사부문의 회복에 중점을 두며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신임사장은 취임 직후 사우회 김수량 회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 선배들의 모임인 사우회가 MBC방송이 1등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부탁하고 "앞으로도 단합대회 등 사우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사장 안우정, 신설 경영기획본부장 이장석 선임

디지털본부장 석원혁, 글로벌사업본부장 정성채

MBC부사장에 안우정 MBC플러스미디어 사장,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경영기획본부장에 이장석 워싱턴 지사장이 선임됐다.

안우정 부사장은 1984년에 입사해 예능국장과 예능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MBC플러스미디어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장석 경영기획본부장도 1984년에 입사했으며 보도국장과 보도

제작국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워싱턴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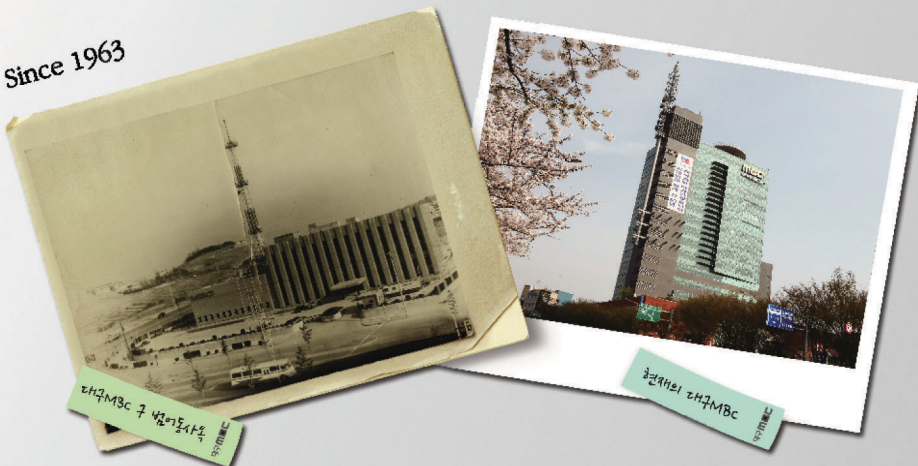


안우정 부사장 이장석 경영기획본부장

MBC는 또 디지털본부장에 석원혁 제작기술국장, 글로벌사업본부장에 정성채 서울경인본부장을 인사발령했다.

대구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Since 1963



五十步望百步

1963년 8월 8일 오전 8시,
대구MBC는 작지만 소중한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대구·경북지역민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슬퍼하며
방송의 유장한 길을 따라 어느새 50걸음을 걸어왔습니다.

2013년 오늘,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할 미래의 100걸음을 바라다봅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함께 했던

지역민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큰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묵묵하게 천천히 그러나 예리하고 신중하게

한걸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초여름 밤의 을왕리 축제

김상옥(편제) 사우회 이사가 3위를 차지해 소정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언제나 그렇듯 관심을 집중시켰던 행운권 추첨에서는 이한수(편제) 회원이 1등(100만원)을 차지했고, 석남수(기술) 회원이 2등(70만원), 박노홍(보도) 회원이 3등(50만원), 오정수(기술) 회원이 4등(30만원)에 당첨되는 기쁨을 누렸다.

행사 이틀째 조별 윷놀이는 8명씩 한조를 이루어 토너먼트로 진행됐는데 36조(박한성-박태지-송재선-이정오(관리)-이해걸-이기준-金盛浩-안남례)가 우승을 차지해 30만원씩의 상금을 챙겼다.

윷놀이판의 대이변 아니 이럴수가?

36조우승, 뺑도로 기적같은 대역전극 연출

노래자랑, 강성구(보도)-조석영(관리)-김상옥(편제)

행운권, 이한수(편제)-석남수(기술)-박노홍(보도)

윷놀이 결승전은 36조와 18조(조승필-정경석-정재호-서기석-신견옥-이양길-이세용-이의린)간에 펼쳐졌는데, 36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박한성 회원의 뺑도로, 우승 일보직전에 있던 18조의 말 3개를 한꺼번에 잡고 기사회생해, 기적같은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경기가 끝날 때 까지는 끝난것이 아니

다’는 메이저리그 뉴욕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윷놀이 내내 여저저기서 환성과 탄성이 교차했다. 승리를 거둔 회원들은 이겨서 흥겨워 했고, 패배한 회원들은 단판승부를 탓하며 아쉬워 했다. 오랜만에 나이를 잊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단합대회를 왜 개최해야 하는지를 실감나게 해주는 장면들이었다.



누가 이 트로피를 아십니까?

최 광 민 (편성제작)



고 있는 것인데, 여의도 사옥으로 이사할 때 분실됐습니다.

필자가 부산MBC에서 서울MBC로 자리를 옮겨 일하고 있던 1962년 어느 날, 일본문화방송의 한 베테랑 PD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나카무라씨 소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고전(특히 고려시대)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2년마다 열리는 일본 민방제에 출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PD 일행을 중앙박물관으로 안내해 국보급 청자를 취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청자를 빚은 도공들의 사랑과 애환, 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지금의 일본 도자기를 만들게 된 슬픈 역사도 취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일본 취재진들은 고려청자의 예술성과 신비함에 놀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고려청자를 내용으로 만든 작품 ‘청자의 색은 하늘의 색과 같다’가 그 해 일본민간방송 프로그램 페스티벌에서 라디오부문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문부대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것은 그들이 그 작품을 한국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착한 트로피가 비너스상처럼 만들어진 우아한 것이었으며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MBC 프로그램이 해외 페스티벌에 출품된 적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트로피의 희소성과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진 우리 트로피와 똑같이 제작된 다른 한 개의 트로피는 지금도 일본문화방송 역대 수상 자료실안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아끼고 소중하게 보존하는 일본인들의 역사 의식이 그 저 부러울뿐 입니다.

없어진 트로피는 문화방송의 역사적 자산이기에 혹시 그 트로피를 보관하고 계신 분은 회사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김민호(보도)3/11 박노홍(보도)3/15 하병호(기술)3/18 조명환(기술)3/19 유문식(관리)3/25 장경철(보도)3/25 조태현(편제)3/27 봉현숙(편제)3/29 박태웅(보도)4/12 석남수(기술)4/22 차경호(보도)4/29 김광배(관리)5/07 이인용(보도)5/07 김종국(보도)5/10 홍석진(기술)5/20

연회비

3월 강복주(13) 강현식(13) 고희복(13~14, 80세납부끝) 권태환(13) 김강정(14) 김경일(13) 김부영(13) 김상옥(07~13) 김선희(13) 김재현(13) 김창욱(08~12) 김재영(13) 김포천(04~13, 80세납부끝) 김희성(13) 남궁미(13) 노영인(13) 박광성(04~13)故박맹의(07~10) 박민정(13) 박승기(전주, 13~15) 박종순(05) 박종진(12~13) 박찬순(13) 반주원(13) 서상웅(13) 서은선(13) 석종현(08~13) 신낙균(12~14) 신해명(13) 심준보(13) 안중순(13) 안주희(13) 양경운(12~13) 연구철(14) 오두영(13) 윤남현(13) 이기준(08~12) 이명순(13) 이성구(13) 이양휘(13) 이연한(13) 이영호(13) 이인숙(13) 이정오(관리, 07~12) 이종선(11~12) 임국희(13) 임봉주(15) 임성전(12) 정길용(07~12) 정무용(13) 정영희(13) 정태성(13) 조미숙(13) 조한준(13) 진두범(08~12) 차종식(13) 최운형(13) 최화숙(13) 표상열(03~08, 80세납부끝) 하영석(12) 한승영(13) 한웅희(13) 홍환식(11~13) 황경자(13)

4월 광성문(04~13) 김대수(전주, 13) 김영면(13) 김용빈(13) 김철순(13) 마병두(08~13) 박복만(11~15) 배성룡(13) 백성원(12~13) 신기준(13) 신명현(13) 유대희(08~13) 유무정(13) 이은숙(07~13) 이철원(05~12) 장기태(13) 장석호(12~13) 정갑표(13) 정영용(13) 조성식(13) 진수용(13) 최정숙(14~18) 최정식(08~12) 표찬일(13) 황용하(05~12)

신규입회

3/7 沈俊輔(업무) 011-741-6507 / 070-8231-5332 /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04 28-1308
3/11 金敏皓(보도) 010-7181-9003 / 02-782-8833 /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A E-805
3/12 鄭茂雄(기술) 010-5702-3214 / 033-651-2311 / 강릉시 포남동 청송A 102-1301
3/12 韓承榮(기술) 010-9199-5784 / 031-838-6142 / 의정부시 녹양동 휴면시아A 103-429
3/12 김휘성(기술) 010-9105-1361 / 070-8822-1062 / 종로구 팔판동 115-21
3/15 朴魯興(보도) 011-289-1890 / 강서구 등촌2동 현대아이파크 111-201
3/18 河炳皓(기술) 010-3769-5767 / 02-3477-5767 / 서초구 서운로 197, 106-1201 (롯데캐슬클래식)
3/19 曹明煥(기술) 010-5241-9706 / 02-3463-1531 / 서초구 양재동 10-32 (401호)
3/27 曹台鉉(편제) 010-8909-2541 / 032-512-2541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4-20 대림A 5-1308
3/29 趙美淑(관리) 010-8636-5859 / 02-2653-5853 / 양천구 목동서로 397 대림아크로빌 B-401
4/4 申基俊(기술) 010-7150-6192 / 070-4064-3418 / 성북구 정릉동 227-78
4/4 鄭甲杓(기술) 010-3746-2621 / 02-6734-1115 / 양천구 목5동 목동A 224-1201
4/26 鄭鎮珉(관리) 010-5386-9352 / 02-6083-7058 / 관악구 미성동 한양A 101-101
4/29 車景鎬(보도) 010-7186-6667 / 02-3482-1957 / 서초구 서운로 197 106-1004
5/7 金光培(관리) 016-874-9986 / 02-394-8701 / 서대문구 홍은동 8-1093 청암빌라 113호
5/7 李仁用(보도) 010-6414-9095 / 02-797-9095 / 용산구 한남동 810 한남더힐 118-904
5/10 金鐘國(보도) 010-3776-1278 /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A 108-1001

경조사항

경사			
팔순	이은춘(관리)6/01	이종철(관리)6/04	서상규(대구)6/19
고희	전옥생(업무)6/08	김명순(Ann)6/15	오효진(보도)6/19
	황귀철(업무)6/23	이대우(보도)6/30	김형국(기술)7/02
	최정숙(편제)7/16	이기주(광주)7/18	金鍾賢(기술)7/23
	연구철(관리)7/28		
회갑	이재만(편제)6/06	정동영(보도)6/17	오준상(기술)6/27
	박정근(편제)6/30	최순근(편제)7/07	정철영(보도)7/11
	이세용(관리)7/25	박민정(ANN)7/31	김영철(편제)6/28
			반주원(ANN)7/13

결혼			
구본학(보도) 딸 3/16	정환웅(편제)장남3/30	이상진(보도) 딸 4/06	김경일(관리)장남4/06
김재철(보도) 딸 4/12	남기두(대구)장남4/13	김상균(보도)장녀4/20	김정환(편제)차남4/20
이상원(편제)장녀4/27	조국환(관리)장녀4/27	차명륜(업무)아들4/27	이기준(관리)차남5/12
이석균(관리)장녀5/17	조태현(편제)장녀5/25	홍준표(관리)장녀5/25	이재은(보도)장남6/01

부음			
조부성(편제)부인상3/08	성철중(편제)모친상3/09	심규성(관리)모친상3/17	이세용(관리)모친상3/24
김동환(기술)부친상4/03	김동성(편제)부친상4/05	박태웅(보도)장모상4/09	장수봉(편제)모친상4/10
윤권중(기술)장인상4/12	이의린(관리)부친상4/19	노승화(기술)부친상4/23	정명환(대구)부친상4/23
강정수(관리)모친상5/04	정병운(보도)모친상5/06	반주원(ANN)부친상5/11	정준모(관리)장모상5/11
조한준(전주)부인상5/11	이영근(편제)모친상5/15		

- **이창희(업무)** : 3월 29일(금) 흡입성 폐렴으로 별세, 향년 76세. 2012년 11월 17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중 폐렴이 겹쳐 별세했다.
- **이진배(관리)** : 청죽회 총무. 3월31일(일) 별세. 향년 59세. 3월 24일 오후 1:00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목뼈를 다친뒤 저녁 8:00쯤 MRI 촬영도중 구토를 일으키면서 기도가 막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고가 난지 1주일 만에 별세했다.
- **고용원(관리)** : 4월 7일(일) 폐렴으로 별세. 향년 80세. 10여년간 치매로 고생해 왔으며 1년전 부터는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냈다. MBC 재직시절에는 원예박사로 불리면서 사내 모든 화분과 꽃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 **노범호(편제)** : 4월 23일(화) 노환으로 별세. 향년 76세. 지난해 5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11개월간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서 투병해왔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으며 2008년 사우회 봄철 낚시대회에서 28.5cm 붕어를 잡아 3등상을 받기도 했다.

전화 / 주소 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I 고문 I 서규석 010-5933-2549	I 기술 I 김종환 010-8960-5249 이영철 031-711-146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1 상록우성A 323-201 진수용 010-2756-0026 최홍립 010-2384-7245
I 편제 I 김양배 부천시 원미구 중4동 금강마을 407-106 김포천 010-4632-3215 마병두 010-5253-9042 박경희 인천시 서구 검단로 834, 103-1203 (신명A) 박종진 강남구 양재대로 43길 21, (일원동) 배상석 5911 Kingman Ave #5 Buenapark CA 90621 U.S.A 이재휘 010-3380-0116 장수봉 031-889-5362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7, 507-1502 정 균 중구 신당6동 신당푸르지오A 105-101 정인영 010-8782-9841	I 업무 I 김재식 010-6258-6552 박광성 010-9019-5429 이원형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대주파크빌 106-702
I 보도 I 김동환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20길 16-302 신현필 강남구 역삼동 834-76 장경철 010-9205-6033 정홍보 용산구 동자동 37-17 아스테리움서울 C-1502 조기양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A B-109 최영언 031-904-4282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문촌마을 709-101	I 관리 I 김일중 010-9149-4251 김태경 은평구 구산동 167-9 한솔빌라 203호 유문식 010-6351-8872 유철수 강원도 동해시 동화동 대동A 15-1102 이유철 관악구 난향동 관악산휴면시아 222-303 이종숙 양천구 목동 499-22 (301호) 조은국 인천시 서구 당하동 현대힐스테이트 504-1203
I ANN I 송재의 강남구 세곡동 376-6 301호	I 전주 I 주규만 031-990-4836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8 경남아너스빌 210-1402

봄날 만끽 원로회원들 노익장 과시

등산대회 - 4월 17일 북한산 둘레길 3시간 산행



올 봄철 등산대회는 4월 17일, 개나리와 진달래, 철쭉꽃이 만개한 북한산 둘레길 19구간(방학동길)과 20구간(왕실묘역길)에서 열렸다.

코스는 도봉초등학교앞 승터를 출발해 쌍둥이 전망대-바가지약수터 까지 간뒤 30분 정도 쉬고, 다시 정의공주(세종대왕 둘째 딸)묘와 연산군묘역을 둘러본 다음 우이동 버스 종점에서 끝났다.

30여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 정도 걸었다. 참석 인원은 처음으로 참석한 노시창(전주) 회원을 비롯해서 79명으로 지

난해 가을철 등산대회 80명과 비슷했다. 한석호(85세)-이현보(83세)-김세중(82세)-노시창(81세) 회원 등 80대 회원 4명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선두에서 일행을 이끌었다.

올해 91세인 노서을 고문은 막판에 힘이 부치는 듯 했으나 끝까지 완주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우회에서 참석한 전원에게 등산용 머그컵 한 개씩을 선물로 주었으며 막걸리를 곁들인 김치찌개와 파전 등 점심식사를 제공해 3시간 여에 걸친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었다.

10개팀 참가 정종국 회원 우승

골프대회 - 5월 10일 충주 중원 골프클럽



5월 10일 충주 중원 골프클럽에서 실시된 봄철 골프대회에는 10개팀 39명이 참가했다. 밤부터 비가 내려 경기 중단까지도 우려됐었으나 다행히 시합 직전에 비가 잦아들어 경기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비가 그치면서 구름이 많이 끼어 시야는 조금 불편했다. 이날 경기는 신페리어 방식이 적용됐다. 관리부문의 정종국 회원이 우승을 차지해 10Kg짜리 청결미 1포를 부상으로 받았고, 업

무부문의 이용구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해 영양잡곡 1포를 받았다. 2M 50Cm까지 불인 이동한(관리) 회원이 근접상을 받았고, 행운상은 권오용(편제), 감투상은 이교운(편제) 회원에게 돌아갔다. 이날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도 신페리어 채점방식에 따라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이현규(보도) 회원과 사우회 입회후 처음으로 참가한 이상진(보도) 회원은 회장이 제공한 특별상을 받았다.

봄철 바둑대회 6월 5일 개최

봄철 사우회 동호회 활동의 마지막 행사인 바둑대회가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중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월척없이 안호선회원 1등 기량과시

낚시대회 - 4월 26일 강화도 선두포 수로



시조회를 겸한 올 봄철 낚시대회는 4월 26일, 강화 선두포 수로에서 실시됐다. 참석 인원 27명, 바람이 조금 불기는 했으나 낚시하기에는 좋은 따뜻한 날씨였다. 회원들 가운데 더러는 입질이 없다며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월척도 없었다. 작은 수로에 앉았다가 넓고 큰 수로로 자리를 옮긴 안호선(관리) 회원이 심기일전해 28.7Cm 짜리 붕어로 1등을 차지했다. 안회원은 2007년 가을철 낚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뒤 2008년에 2등, 2011년에 다시 1등을 차지하는 등 가을철

낚시대회에서는 발군의 기량을 과시했으나 봄철 대회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다가 드디어 올해 그 징크스를 깨고 전천후 낚신푼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홍진표(관리) 회원이 2등(붕어 27.5Cm), 송인희(관리) 회원이 3등(붕어 27.3Cm)을 차지했다.

1, 2, 3등을 관리부문 회원들이 휩쓸어 다른 부문을 압도했다. 기술부문의 이정오 회원은 32.5Cm 짜리 강준치를 잡아 행운상을 차지했다.

이날 낚시대회에서 입상한 4명에게는 고급 남-녀 화장품세트가 상품으로 주어졌다.



Travelogue

스타렉스 빌려 교대 운전하며 남도 400킬로미터 힐링여행

김진홍(관리)



▶ 왼쪽부터 유홍철, 신원호, 김성환, 박종규, 이원하, 김종현, 최병태, 김진홍, 정광수씨는 사진 찍느라 없네요

첫째날 (4월 8일) 월요산악회회원 9명이 스타렉스를 렌트하여 남도여행길에 올랐다. 날씨는 약간 쌀쌀하지만 하늘은 맑고 여행하기에는 좋은 날씨다.

수서역에서 7시에 출발하여, 아침식사는 못하고 나와 망향휴게소에서 아침 식사와 커피를 마신 후 천안명물 호두과자를 사 들고 차에 올랐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례산수유마을에 도착하였다.

산수유 축제일이 지나서인지, 토요일(6일)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인지, 꽃은 반쯤지고 관광객도 별로 없는 한적한 시골마을 돌담 풍경이다.

구례산수유마을을 뒤로하고 화개장터 쌍계사 십리벚꽃길, 양면 벚꽃나무에 벚꽃들도 절정기가 조금 지났다.

쌍계사 입구에 도착하니 관람료가 2,500원인데, 65세 이상은 무료라서 우리일행은 관람료 없이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노인친국인가 생각해 본다. 쌍계사는 신라시대인 722년에 창건되어 이후 840년에 대가람으로 중창된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이다. 쌍계사

를 둘러보고 주차장 앞 식당에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화개장터 우측방향 다리를 건너 섬진강을 바라보며 다음 목적지인 매화마을로 이동을 한다.

조영남의 화개장터 '노래 때문에 화개장터가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는 홍쌍리 매실농원 입구 표지석을 보고 마을 지명인지 알았는데, 홍쌍리여사 이름을 딴 매실농원이라 한다.

홍쌍리여사는 경남밀양에서 태어나 1965년 밤나무 1만주, 매실나무 2천주가 심어진 산비탈 농가에 시집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청매실농원을 일구어낸 신지식 농업인이라고 한다.

홍쌍리여사의 매실농원을 구경하고 광양 IC를 지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 향했다.

갈대밭 데크 보행로를 따라 아름다운 갈대숲을 보며 지나가는 곳곳에 갈대를 베어 놓았는데, 아름다운 갈대를 만들기 위해 이른 봄에 베다고 한다. 선상투어를 체험할 수 있는 배가 물이 빠진 갯벌, 이곳저곳에서 물이 들어와 손님 맞기를 기다리고 있듯 서있고,

월요산악회팀 9명, 맛집 유명 관광지 돌며 추억을 담고 한잔 술로 인생을 풍요롭게 했다

구례 산수유마을-홍쌍리 매실농원-순천만자연생태공원-땅끝마을전망대 일출-유달산-젓갈시장 곰소항-대소사 전나무 숲길-새만금-해산물 본가 흥원항 거쳐 상경

정착되어있는 갈대열차를 뒤로하며 오늘의 마지막 기착지인 해남 땅끝마을로 향했다.

땅끝바다횃집에서 오늘이 생일인 최병태 회원의 생일을 축하하며 오늘의 피로를 한잔 술로 풀고 숙소로 향했다.

둘째날 (4월 9일) 우리나라 국토 육지의 최남단에서 일출을 보기위해 5시50분에 숙소를 나와 땅끝 탐 전망대로 올라갔다.

붉게 떠오르는 일출은 못보고 조금 뜬 뒤에야 볼 수 있었다.

각자 이곳에서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두 번째 목적지인 목포 유달산으로 향했다.

유달산에 올라 유달산의 숨결과 향기를 느끼며 목포항을 바라본다. 노적봉에서 시민의 종을 조금 지나가자 바위에 박힌 수많은 쇠말뚝들... 그것을 뽑지 않고 잘라내고, 그곳에 빨간 표시를 하여 놓은 것은,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는 것일까? 또 그곳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다산목(多産木)이 있다.

실제로 이 나무를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관광객들 사이에는 일명 여자나무라고 불린다.

오늘의 기사겸 가이드 박종규회원이 해안가 드라이브를 시켜준다고 들어선 길이 외길에,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그 아래가 해저 유물 발굴지란다.

우리는 구경은 잘하였지만 기사님은 곡예운전을 하느라 구경도 못하였을 것 같다. 엘도라도리조트 전망 좋은 곳, 태양염전, 소금박물관을 데리고 다니며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일급가이드 역할을 했다.

법성포 굴비시장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

도 있고 오른쪽엔 부도탑도 있다. 나무조각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웅보전의 꽃무늬 문살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전나무 숲길을 나와 채석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채석장은 변산반도 맨 서쪽, 격포항 오른쪽에 있다. 바닷물에 침식되어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권의 책을 쌓아놓은듯하다.

주변의 백사장, 맑은 물과 어울려 풍치가 아름답다. 부안 마실길 구간을 지나 새만금 방조제 제1관문 승터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았다. 19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하고, 길이 33.9km, 평균 바닥 폭 290m(최대 535m), 평균 높이 36m(최대 54m)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다고 한다.

군산 시내를 지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마지막 여행지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으로 향했다.

서천동백꽃 쭈꾸미 축제장은 날씨 때문인지, 쭈꾸미가 너무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다. 무대와 빈 의자만 놓여있고 스피커에서 노래만 흘러나온다. 우리 일행 9명을 보고 호객행위를 한다.

동백나무숲만 한 바퀴 돌아보고 흥원항으로 이동을 하였다. 흥원항에는 어부들이 게잡이 그물인지 손질을 하고 관광버스도 제법 들어와 있다.

흥원항 해산물본가에서 회 정식에 여행마지막 술을 마신다.

우리의 추억여행을 남긴다고 사진도 열심히 찍는데, 운전을 한다고 술을 한잔도 안하는 정광수회원, 오늘 마지막 행들을 잡는다.

수서역에 도착하니 오후 4시 20분이다. 우리의 2박3일 여행은 이렇게 끝났다.

내년에는 동남아여행 계획을 꿈꾼다. 꿈은 꾸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며...

ESSAY

세상만사 정해져 있는 데 사람들은 어찌 헛된 꿈을 꾸나

김영철 강원민방 GTV 사장



1977년 12월 공채PD로 입사
2005년 진주MBC 사장
2009년 국회사무처 방송기획관
2011년 강원민방 대표이사 사장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서울에서의 방송생활 32년을 뒤로하고 춘천이라는 추억과 낭만 그리고 문화의 향기 폴폴 넘치는 동네에 아예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동지를 뜯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는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난 2년이 후딱 흘러가버렸습니다.

춘천, 강촌, 대성리-학창시절 청량리역에서 입석기차를 타고 통기타에 스테레오 카세트 하나씩 들고 삼삼오오 모여 청춘을 구가했던 수도권 대학생들의 추억의 MT 장소-지금은 ITX열차, 전철 그리고 경춘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한시간 남짓이면 서울에 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근접성이 좋아져 우리포레의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해마다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이곳, 춘천에서 2년 전 제 방송인생의 2막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운명은 참 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시절 그리고 MBC에서의 현업시절 가끔 왔었던 이곳 춘천에서 나이 60이 다 돼서 터를 잡고 강원도민

으로 산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명심보감에 “萬事分己定 浮生空自忙”이라는 말이 역시 허언은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이미 분수대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헛된 꿈을 꾸고있다란 말입니다)

제작년 강원도지사 선거때, 정책토론회를 하기위해 저희회사를 방문한 엄기영, 최문순 두 후보와 차를 한잔 하면서도 한 직장에서 선후배로 한 술밥을 먹던 사이였는데 인연이 참 묘하다는 생각도 했고 얼마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신종인 선배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MBC 출신들이 다 해먹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2008년 3월, 진주MBC 사장을 마지막으로 만 30년간

낭만과 추억의 도시 춘천에 동지 툄 줄 누가 알았겠나요

국회어공(?)에서 강원민방 사장으로 벌써 2년

정년 이후가 인생에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시기라 생각 강원도는 MBC 출신들이 다 말아먹는다고 우스개 소리

제작했던 정든 MBC를 떠나 6개월간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가 언론중재위원을 해보라는 주위의 권유로 비상임으로 그 일을 하고있다가 어찌 어찌하여 팔자에 없는 국회사무처 방송기획관이라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2년반 동안(춘천에 내려오기 위해 임기중 그만둬)의 국회에서의 경험은, 처음에는 방송사의 조직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 조직문화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때의 공식사회와 정치판을 직접 체험하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저에게 있어 굉장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의 영역을 벗어나서 큰 틀에서 국정과 행정관리의 개념과 조직문화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강원민방은 강원도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SBS와 프로그램 제휴관계(SBS수중계 75%, 자체제작 25%)에 있는 지상파 민영방송사로 강원도민들의 출자로 200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규모는 지역MBC 2개 정도를 합친 규모이며 제가 30여년간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방송인생 2막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3등분해서 이야기 합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마칠때 까지가 첫 번째 시기이고 결혼과 직장생활을 거쳐 정년을 맞을때 까지가 두 번째 시기 그리고 정년이후의 삶이 세 번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기를 흔히 인생에서 가장 축복 받은 시기, 새로운 도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와 여백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술과 문화가 세계인을 부른다

유희근 전 전주MBC 사장

투우와 플라멩고의 스페인은 세계의 관광객이 밀려오고 또 밀려온다. 20년 전에 갔을 때도, 10년 전에 갔을 때도 거리는 가득 찬 관광객으로 활력에 차 있었다. 세계경제가 불황이라고 아우성치는 지금도 스페인은 외국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인구 4,500만 명에 관광객은 6천 8백만 명, 이것이 스페인이다. 국가 재정의 15퍼센트가 관광수입이다.

인구 5천만에 관광객이 천만도 안 되는 우리와 비교되는가? 바르셀로나市 하나의 인구가 겨우 160만인데 관광객이 2천만이나 된다니 놀랍지 않은가?

도시 전체가 관광버스로 줄을 잇고, 거리마다 관광객들로 가득 차있다. 왜 이렇게 밀려오는가?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라는 천재적인 건축가 한 사람이 먹여 살린다” 고 말한다.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7개나 된다. 구엘 공원, 100년째 건축 중인 聖 가족성당, 까사밀라 빌딩..... 이런 것들을 보러 몰려온다. 스페인에는 이슬람 최고의 건축예술 알함브라 궁전,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톨레도,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로 유명한 풍차마을, 미국 작가 헤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썼던 마드리드 골목..... 이렇게 예술가들에 얹힌 전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는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스페인, 매년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 국가재정 15%가 관광수익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헤밍웨이 단골술집, 사갈의 마지막 거처, 칸느의 레드카펫... 이것이 관광콘텐츠

났다고 허물고 부수고 천년 경주에 아파트, 빌딩숲을 세운것이 대표적인 실패작 아닌가?

우리 전통 예술과 문화에 역사의 웃을 입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때의 ‘대~한민국’ 2013년 사이의 말춤은 스토리텔링을 입힌 세계적인 한류 문화로 꼽혀

헤밍웨이가 커피마신 집, 헤밍웨이 단골술집, 헤밍웨이가 원고 쓰던 집.... 이렇게 유명 예술인과 연관시키는 것도 관광예술이다.

사라고사에 있는 바실리카 델라르 성모성당은 화가의 작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세계적인 화가 엘 그레코의 대작이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벽을 가득 채운다.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이라는 이 작품 하나



▶ 스페인 집사들이 그들의 고유문화 콘텐츠인 플라멩고 춤을 추고있다.

를 보기 위해서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당을 찾아간다. 높이 5미터, 너비 4미터나 되는 거작이다.

이 그림에는 여러 명의 사람 속에 화가 자신과 아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한 작품이다. 유럽에서는 베토벤이 살던 집, 셰익스피어의 집필실, 모차르트의 생가 찰츠부르크를 찾아가는 관광객이 꼬리를 문다.

그러한 동네중의 하나가 남부 프랑스에 있는 생뵈드방스다. 지중해 해변의 세계적인 휴양도시 니스 근처에 위치한 생뵈드방스는 멀리서 바라보면 산꼭대기에 얹혀있는 삼각형의 자그마한 동네이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지르고 환상에 젖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골목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겨우 비

로방스의 아틀은 비운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이야기가 얹힌 곳이다. 37살의 나이에 비참한 인생을 마친 고흐, 그가 세상을 등지고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그림에 매달렸던 노란 집을 보러, 아틀을 찾아간다. 고흐의 작품 중에 유명한 ‘아틀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는가?

2002년의 월드컵이 끝난 뒤에 유럽을 찾았을 때는 상점마다, 식당마다 점원들이 “코리아?” 하고 묻다가 “예스” 하면 “대~한민국”을 크게 소리치며 반가워했다.

지금은 어디서나 “코리아?” 묻고 나서 “예스” 하면 즉시 강남스타일을 외친다.

점원들은 사이의 말춤을 흉내 내면서 몸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웃는다.

예술과 문화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정열적인 플라멩고 춤 하나로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혼을 사로잡지 않는가?

화려하고 경쾌한 강강 춤으로 빠리의 밤을 열광하게 만들지 않는가?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칸느에서는 레드카펫이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인가? 칸느 영화제는 매년 5월에 열린다. 이때는 멋진 배우들이 화려한 의상차림으로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화제가 열리는 그랜드 오디토리엄 계단에는 언제나 빨간 카펫이 깔려 있다.

그래서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그랜드 오디토리엄 계단 앞에는 관광객들이 일 년 사계절, 카메라를 들고 너도나도 기념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다.

자기 자신도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찍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는가? 세계인을 우리 안방으로 끌어들이려면 행정부나 시민들이 예술문화관광에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났다고 해서 허물고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천년의 경주에 아파트와 빌딩을 세우는 것이 대표적인 실패작 아닌가? 우리의 오랜 역사와 예술과 문화를 내세워야 한다.

예술과 문화에 역사를 묶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세계인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큰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겨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마다 양쪽에 멋진 화랑들이 잇달아 있고, 사이사이로 예쁜 옷가게, 향수가게, 선물가게, 테이블 서너 개의 자그마한 식당들..... 마을 전체가 예술작품처럼 아름답다. 빛의 화가 사갈이 이 마을을 더 빛나게 한다.

사갈이 93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한 동네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욱 더 찾아간다. 프

이 사람!

“지나온 삶의 불만 모두 털고 나는 행복하다”

-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다녀와서 정태식(기술)

에베레스트를 포함하여 세계의 최고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네팔,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뿐만 아니라 트레킹을 하려고 많은 트래커들이 즐겨 찾는 나라 네팔, 네팔의 유명한 트레킹 코스는 랑탕, 안나프르나, 에베레스트로 대별한다.

나는 1996년도에 안나프르나 베이스 캠프에 갔다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트레킹하기로 했다. 안나프르나 베이스 캠프에 갔을때 고지대에 산소가 희박해서 트레킹 하는데 매우 힘들었으나, 이번에는 더 높은 5600m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고산증이란 두려움도 있었으나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설렘과 60대 중반의 나로서 모험과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몸을 항공기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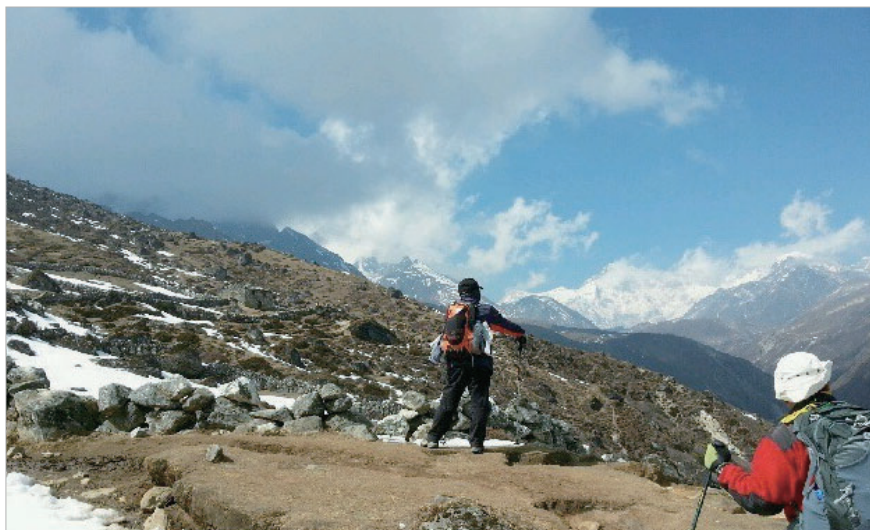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7시간이 지나 네팔 트리부반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바라본 주위 산들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카트만두의 기온은 27도, 우리 일행은 MBC 현직에 있는 후배 3명과 전국에서 모인 18명 등 22명이었다. 카트만두에서 1박 후 다음날 아침 트레킹 출발지점인 루크라로 국내비행기로 이동했다.

우리가 처음 탑승했던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30분 후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다.

그런데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는 조금 전에 이상이 있었던 바로 그 비행기였다. 두려웠지만 비행기는 무사히 40분을 날아 루크라 공항에 도착했다.

루크라 공항은 히말라야 산 중턱 2850m에 만들어 놓은, 활주로가 500m로 매우 짧은 공항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비록 활주로는 짧지만 산의 경사를 이용하여 속도를 자동으로 줄일 수 있어 안전하게 착륙 할 수 있었고, 이륙할 때는 반대로 경사를 이용하여 속도를 올리며 이륙하는 특이한 공항이었다.



▶ 5,600m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3월 1일 ~ 15일) '나는 모험을 즐기고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싶었다'

루크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셀파, 포터, 한국음식 요리사와 함께 긴 여정의 트레킹을 시작했다.

고소증은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무리하게

이는 3400m, 고소적응을 위해 이곳에서 2일간 머물렀다. 남체바자르를 기점으로 주요한 2개의 트레킹 코스로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코스와 고교 코스가 있었다.

여기선 자기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고 당부하던 셀파 제치고 호기있게 앞서가던 두 사람 이틀 후 결국 고산증에 건디지 못해 말에 실려 하산

눈 덮힌 에베레스트 정상의 웅장함 그리고 눈보라가 만든 무지개는 환상적이었다

17년전 안나푸르나 다녀 온 경험민고 어려운 코스 택해

30년 테니스로 다진 체력도 그러나 60대 중반인 나에겐 무리였다

빨리 움직임으로서 발생하는 증상이라며, 셀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보다 앞서서 가지 말고 천천히 걷도록 우리 일행에게 당부했다.

4500m 고지대에서 10m 정도 만 뛰어가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이탈자가 있기도 했다. 이틀 후, 티베트, 중국 네팔의 교역의 중심지였다는 남체바자르(바자르는 시장을 의미)에 도착했다. 높

MBC 후배와 나는 좀 더 어려운 고교 코스로 가기로 하고, 나머지 18명과는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트레킹하면서 바라본 눈 덮힌 에베레스트 정상의 웅장함과 눈보라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이는 무지개는 환상적 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드디어 힘든 트레킹 여정이 시작됐다. 4300m에서 1박 후 4800m인 고교까지 500m를 올라가는데 거의 7시간이 걸려 도착했다. 산소가 희박

한 곳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 눈길에서 서서 잠시 쉬는 동안 졸기도 했다. 일행이 없었다면 저 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기압도 낮고 산소도 희박해서 얼굴이 요괴 인간처럼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오르다는 것은 나에게겐 무리라고 생각했다.

마침 우리가 가고자 했던 코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트레킹 할 수가 없었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 온 많은 외국 인들도 포기하고 내려갔다. 그러나 후배들은 다른 코스로 더 올라가기를 원했다.

도전, 모험, 인내, 그러나 60대 중반의 나로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리한 도전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후배들과 헤어져, 셀파와 함께 우리 일행이 만나기로 했던 남체바자르로 향했다. 이틀 후 남체바자르에 도착, 몇 시간 후 다른 코스로 갔던 18명이 도착했다. 빨리 걷지 말라는 셀파의 말을 기억하고 이탈했던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하산했다. 고산병으로 며칠 식사도 못하고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나는 30년 동안 테니스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체력으로 견딜 수가 있었다.

15일간의 트레킹을 마치고 돌아오는 항공기 시트에 몸을 기대고, 트레킹하면서 만난 네팔의 70% 이상의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았다.

3000m, 4000m의 걷기도 힘든 높은 고지대를 50kg에서 100kg정도의 짐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며칠을 걸으며 운반해주는 네팔의 저소득층 사람들, 그러나 행복지수는 상위권에 속하는 그들의 삶.

특히 짐을 메고 가는 어린 소녀, 소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나온 삶의 불만이 진정한 불만이었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잠을 청했다.

회원동정



하광언(보도)

세명대 초빙교수, 철학개론 강의

전 보도이사. 70대에 박사학위를 따 우리를 놀라게했던 그가 올해 신학기부터 세명대 초빙교수로 철학개론을 강의한다.



이상열(보도)

한국언론인연합회장 연임

前MBC보도이사, 한국언론인연합회장. 3월 12일에 열린 한국언론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연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이회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과 한국방송기자클럽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승문(편집)

자연 주제로 세 번째 개인전 열어

사우회남시회장, 前MBC영상미술국장. 본인의 세 번째 개인전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쉼'에서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두 번째 개인전 이후 27년 동안 준비해온 꽃과 나비, 새등 자연을 주제로 한 35편의 작품이 공개됐다.



박흥영(편집)

'텔레비전 콘텐츠 제작론' 출간

세명대교수. 4월 10일(수) '텔레비전 콘텐츠 제작론'을 출간했다. 박교수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연출가로도 활동중이다. 한편 세명대에는 김윤영(편집) 권문혁(편집)교수도 재임하고있다.



이상범(관리)

CTS기독교TV 마켓팅 국장으로 선임

前MBC미술센터이사, CTS기독교TV 예술단운영실장. 5월 1일 CTS 마켓팅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국장은 광고와 사업예술단을 총괄하게 된다.



조복형(관리)

세명대 초빙교수 부임, 공연예술개론 강의

전 LA지사장. 2013년 3월 세명대 공연예술학과초빙교수로 부임했다.이번 학기부터 공연예술개론을 강의한다.



주철환(편집)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 출판 기념회

前이대교수·경인방송사장, JTBC 대PD. 새로 낸 책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 출판기념회를 4월 1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가졌다. 주PD는 이 책에서 '집념보다 잡념의 사나이로 살아서 더 행복했다'며 30년 사회생활을 정리한 인생 잡념사를 다루고 있다.



이기준(관리)

문우회 새 회장에 선출

차량부 출신 회원들의 친목단체인 문우회가 임원을 개선했다. 문우회는 3월 23일 서울 마포에서 모임을 갖고 새 회장에 이 기준 회원을 선출했다. 이 신임회장은 MBC 재직시절 차량부 부국장을 역임했다. 문우회는 또 부회장에 최대홍, 감사에 문기영, 총무에 전병욱 회원을 선출했다.

1학문공부방

유희근의 논어 이야기 6



- 나무와 바람과 효도

어느 날 공자가 길가에서 우는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우는가?”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젊은 시절에는 지방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부모님을 봉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돈도 있고 시간 여유가 생겼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슬프고 원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樹欲靜而(수욕정이)하나 風不止(풍부지)요

子欲養而(자욕양이)하나 親不待(친부대)라

나무가 고요하고자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하나 아버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마치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 문장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수욕정(樹欲靜) 세 글자만 써도 예로부터 효도와 관련된 말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같이 부모의 지극한 자식사랑과 자식들의 정성스런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6월부터 孟子를 공부합니다

맹자는 논어보다 쉽고 그의 정치철학과 인생지표는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고있다. 매주 목요일 10시 사우회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관심있는 회원 누구든지 전화 (02-722-7416) 주세요